

공인중개사 5명중 1명 年 2400만원 번다

부동산 거래 감소·중개사 과잉·앱 등장에 입지 좁아져 지난해 주택 거래 14만건 줄어...1명당 월 1건꼴 거래

5년 전부터 광주시 광산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해온 정모(47·여)씨는 최근 일을 접어야 했다. 주부로 생활하면서 어렵게만 공인자격증이라 써이기 아깝지만 갈수록 계약건 수가 줄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정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 본업은 잠시 접고 지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돕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만 일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도 정씨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사 호시절은 옛날이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회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연 매출과 영업비용(임대료·인건비·광고비 등)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에는 이런 공인중개사 시장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소득 규모를 분석한 자료는 처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이 1200만원 이상~24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4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21%), 36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19%), 4800만원 이상~7200만원 미만(14%), 1200만원 미만(11%) 순이었다. 연 매출 3600만원 미만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이와 관련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 정도 매출과 비용을 유지해보면 공인중개사 절반 정도가 월 수입 100만원 미만, 80% 정도가 월 수입 200만원 미만이라고 보면 된다. 공인중개사 업계 ‘보릿고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부동산 시장의 정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와 중개사 과잉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06년 108만건에서 2010년 80만건으로 줄었다. 이후 반등해 2015년 119만 건을 찍은 뒤 지난해 105만 건을 기록했다. 수치로만 따져도 공인중개사 1명이 월 1건 정도 거래 중개한 꼴로 중개사 포화 상태다.

또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침과 변호사들의 잇단 시장 진입 시도도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직방·다방 같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업체도 등장해 공인중개업소의 발그릇을 흔들고 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확대도 공인중개사의 설 자리를 좁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 앱을 이용한 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등기를 이용해 등기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면 부동산을 찾는 발길이 더 뜰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가 위기에

몰린 건 ‘전문성 미흡’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수십년간 단순히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이를 매수 희망자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행태에서 발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현재 상황에선 시장 정리가 불가피하다. 공인중개사가 살아남으려면 단순 알선 중개를 넘어 컨설팅·금융·세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차 서비스나 저리 대출 알선, 법률·세무 대행, 임대 관리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에 따르면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전체 9만 9818명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개업중개사 수는 50대가 3만9589명(39.6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만7871명(27.92%), 60대가 1만8573명(18.60%) 순이었다. 광주·전남에서만 5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7.38 (+3.70)	금리 (국고채 3년) 1.66% (0.00)
↑ 코스닥 652.04 (+2.98)	↓ 환율 (USD) 1119.50원 (-5.60)

탁월한 생활인프라 ‘힐스테이트 본촌’

현대엔지니어링 834가구 공급...신용도에 전분주택 오픈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시 북구 본촌동 312번지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본촌’이 내달 2일 전분주택을 문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본촌은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834가구(조감도)로 이중 199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64㎡ 84가구 ▲68㎡ 94가구 ▲84㎡ 656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힐스테이트 본촌은 첨단지구, 일곡지구와 인접해 생활인프라가 우수하다. 일곡지구와 학군, 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어 단지에서 지산중학교와 본촌초등학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인근 용두초, 용두중, 일신중, 송일중·고교, 살레시오중·고교 등도 가까이 있다. 북부 권역의 주요 주거단지인 첨단지구와 멀지 않아 대형마트, 첨단병원, CGV, 메가박스 등 쇼핑과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한새봉과 잘산봉이 자리 잡고 있으며, 등산로 이용도 편리하다. 광주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광주패



밀리랜드도 가깝다.

교통 환경도 뛰어나다. 임방울대로를 통해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빛고을대로를 통해 상무지구는 물론 서광주·북광주·동림 IC로의 접근성이 우수해 타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2019년 10월 입주 예정이며, 전분주택은 광주시 북구 신용동 476-26번지에 위치해 있다. 문의 1800-0447.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 TV 英 매체 ‘올해 최고 브랜드’ 최근 7년간 5회



영국의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셀프리저지(Selfridges) 백화점 내 삼성전자 매장에서 매장 직원이 소비자에게 QLED TV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TV가 영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연맹지 ‘위치(which)’로부터 ‘올해의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위치는 최고의 TV와 AV 제품 브랜드를 뽑는 사운드&비전(Sound&Vision) 부문 평가에서 삼성전자 TV를 선정했다. 삼성전자 TV는 최근 7년간 5회 이상 수상하며 최다 수상을 받게 됐다. 또 삼성 전자 TV 48개 모델은 ‘베스트 바이(Best Buy)’로 선정됐다.

위치는 한 해 동안 영국에서 출시된 제품을 평가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해 가장 뛰어난 제품 브랜드에게 ‘올해의 최고 브랜드’를 수여한다.

회사 관계자는 “환상적인 화질의 TV 뿐 아니라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무선 오디오 역시 칭찬받을 만하다”고 호평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프리미엄 TV인 ‘QLED TV’는 독일의 영상·음향기기 전문 평가지 ‘비디오(Video)’ 5월호에서 사상 최대 평가 점수를 받는 등 삼성 전자 TV가 유럽에서 연이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내일까지 부분파업

매각 과정 고용보장·임단협 요구 수용 촉구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중국 더블스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노조가 부분파업을 결정 지역 경제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노조)가 전남 광주공장 에서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1일부터 2

일까지 이틀간 근무조별(3개조)로 2시간씩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완전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파업에는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들이 참여한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2016년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0일 26차 분교섭을 진행했지만 1노조가 부분파업을 결정했다”며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도외시 한 부분파업 결정은 위기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고 유감을 표 시했다.

이어 “현재 회사 상황은 기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을 때 보다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노사간 신뢰를 지키기 위해 기존 안을 중심으로 재논의를 요구하며 최선의 노

력을 다해왔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단체교섭과는 무관한 파업을 결정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노조는 파업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원들의 진정한 의중을 헤아려 1년간 진행해온 단체교섭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다시 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노사가 함께 회사의 경영난 극복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4월 광공업생산 광주·전남 감소

전월비 광주 4.5%·전남 1% ↓...대형마트 판매 증가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율이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했으나 전월대비 4.5%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분야 중 기계장비, 금속가공, 1차 금속 등은 감소했으나 자동차,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은 증가했고 금속가공, 1차 금속, 자동차 등이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고무 및 플라스틱, 식료품 등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섬유제품, 1차 금속 등은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4.1%, 전월대비 1.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지수는 132.9로 전월대비 증가했다.

광주지역 백화점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2.9%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는 1.4% 증가했다.

4월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1차 금속,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은 증가했으나 운송장비, 석유정제, 비금속광물 등은 줄어 전년 동월대비 4.5% 감소했다. 전월 대비는 1.0%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1차 금속,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은 증가했으나 운송장비, 석유정제, 비금속광물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4.4%, 전월대비 1.0%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화학제품, 의료정밀공학, 비금속광물 등은 증가했으나 1차 금속, 석유정제,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8.0%, 전월대비 1.1%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 지수는 109.4로 전월대비 감소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0.3으로 전년 동월대비 2.3% 증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